

## 에드몬톤 소망 교회

2018 02 20



## 평신도 후기

4 복음서 성경읽기를 한 후....

새해~

첫달~

첫날~

첫시간~

새로움과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좀 더 특별함이 묻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를 첫단추를 잘 꿰려고 집중을 높이곤 합니다. 올해 2018년 새해를 맞아 하루의 첫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실천한다는 계획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 졌습니다. 이런 계획에 내가 매일 합류하고 또 나의 두 자녀가 주 4회의 새벽기도회 중 매주 2회 참석하여 합류하니 매일 같이 새 힘이 솟구치고 그 새 힘은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예로 우리 가족이 새벽기도회 성경읽기에 다녀와서 때로는 아침식사 때 잠깐 오늘 새벽에 받은 은혜의 말씀에 대해 나누기도 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또 내 가족에게 먹여주는 풍성한 식탁을 이루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소리 높여 주의 말씀을 읽어  
망연자실해 있는 자들에게 들리게 하리니  
성도들은 깨어나서  
도시 전체를 주의 말씀으로 채우리라.  
에드몬튼 도시의 전도자가 되는 소망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8 년 2 월 13 일  
작성자: 소망교회 권사 양미자

## 목회자 후기

먼저 귀하고 특별한 말씀 새벽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018 년 1 월 9 일부터 2 월 20 일까지 “말씀속으로” 프로그램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받자는 취지에서 말씀 새벽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4 번의 말씀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느낀 점과 은혜를 간략하게 적고자 합니다.

‘말씀속으로’ 새벽기도회를 통해 느낀 점과 받은 은혜들.

### 1. 새벽 설교의 부담감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새벽기도회 때에 전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설교는 주로 성경의 한 권을 정하여 강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본문은 쉽게 설교가 준비되기도 하지만 어떤 본문은 여러 책을 읽어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겨우(?) 10 분 정도의 분량 밖에 되지 않지만 새벽기도회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루를 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대충 준비할 수 없는 설교이기에 새벽 설교에 한 두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준비하면 진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듣는 새벽기도회 동안에는 설교 준비의 거룩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다른 주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2. 수동자로서의 말씀 은혜 체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전하는 자였습니다. 전하기 위해 읽고 쓰고 묵상하고 다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으로’에서는

그저 듣는 자였습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였습니다. 저의 행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습니다. 들리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 믿습니다.’로 고백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능동태의 은혜와는 다른 수동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능동태이기 전에 먼저 수동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은 내 힘이나 노력으로 얻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동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것을 감사하므로 받는 수동자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 3.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조적인 신선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하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늘 부담이 되었고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에 신경이 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 속으로’를 통해서 신선한 말씀 대하기를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없이 말씀 자체를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예로, 두 자녀와 함께 새벽기도회를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냐고 물어 본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답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간증 아닌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같은 특별 절기 때에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 4. 설교 전달에 대한 귀중한 배움

리차드 박스터는 설교자가 설교 할 때는 ”친근한 음성”으로 설교하라고 했는데 이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그 말 뜻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되어 전달 방법에 대해 다소 소홀했던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배움이었습니다. 여러 성우들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음성으로 설교해야 하는 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게 특별히 다가온 음성은 ‘위로의 음성’입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설교자의 음성에도 위로가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로를 넘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저의 음성이 ‘치유의 음성’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 ‘말씀 속으로’를 통해서 얻게 된 귀한 배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말씀 속으로’프로그램은 저희 교회와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성도들에게는 직접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고, 제국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설교자로써의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두서없이 쓴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에드몬톤 소망 교회 주석환 목사